

2025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예술누림

사진작품집

햇살 바람 돌

그리고...

사랑





김 부 열

고요속의 품격

은행나무와 고즈넉한 기와집 그 사이에 서있는 배롱나무가 어우려져 한폭의 그림처럼 멋진 풍경
(영천 임고서원)



바람 머무는 다리

신안의 짱뚱어 다리는 갯벌위에 띠있는 것처럼 보임이 한적함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



김 귀 한



예쁜 꽃입니다.

한 꽃같이 살고 싶다. 너는 너무 예쁘다.
(대봉교 도로가)



국채보상기념공원

웅장한 모습에 고개 숙입니다.



김영배

천문산의 절경

천문산 웅장한 절경에 감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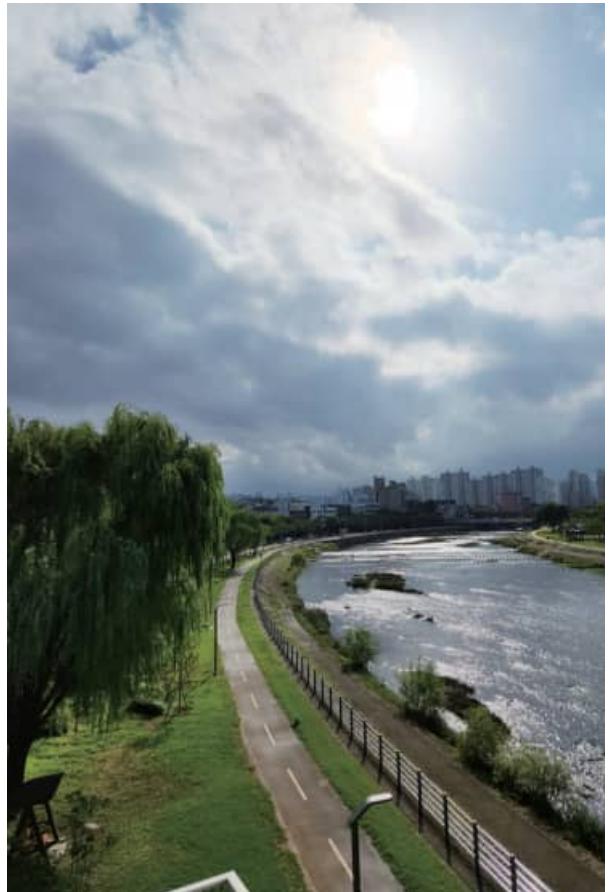


고래상과 구름

호수 위 고래상이 구름과 잘 어울린다.
(영천시 망정공원)



김 인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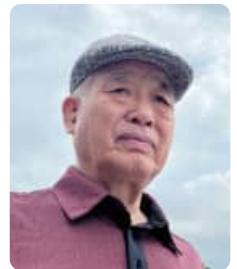
구름과 물의 만남

시작과 물의 끝이 보이는 마음
(신천)



꽃과 길 사이

아름다움을 연상하는 나의 마음
(도청교)



김제선

침산정

침산 오봉산 5봉 중 가장 높은곳에 있으며 시방이 잘 보이는 곳이다.
서거정시 대구십영(大丘十詠)중 마지막 장소 침산만조로 이름난 곳이다.
(침산공원)



산업박람회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박람회 넓은 장소에 볼 것이 많았다. 어둠속에서 빛나는 것을 찍어보았다.



문정숙



이국의 풍경

아침 일찍 걸어가며 다락 논을 감상하는 푸른 모습이 좋았습니다.
(용척제전)



꼬부랑길

가을에 물들은 모습이 설날에 색동옷 입은것처럼 예쁘네요.
(보은 말티자)



박 영 애

친구 토끼들

친구들과 같이 햇볕보고 즐거워 하면서 좋아 하는 모습 행복해 보이네요.
(칠곡 하루 체험농장)



해바라기 - 사랑스러움

꽃말은 사랑스러움, 자부심, 몰래한 짹사랑



송 창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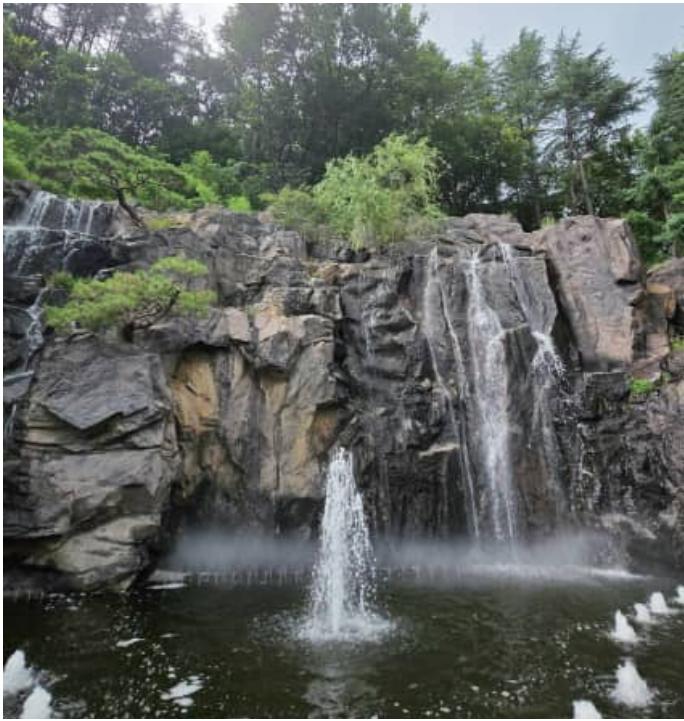
사인암 출렁다리

한여름날, 뜨거운 햇살을 받고 있는 외로운 출렁다리
(단양 사인암 가는길)



복을 주는 금붕어

떼지어 다니는 금빛나는 금붕어떼
(기장 용궁사)



신 선희

시원한 폭포의 여유로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인공폭포의 물줄기가 폭염을 피해서 반겨주는
쉼터의 공간 폐부 깊숙이 말끔히 청소함이 시원한 느낌
(침산동 오봉폭포)



잔디 쉼터의 총만함

평화로운 마을입구쪽 자리한 아담하고 소박한 쉼터마을
하늘과 나무, 돌무더기, 돌위에 그려진 그림들, 언제나 부대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늘 찾아갈 수 있어 풍요롭다.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전평못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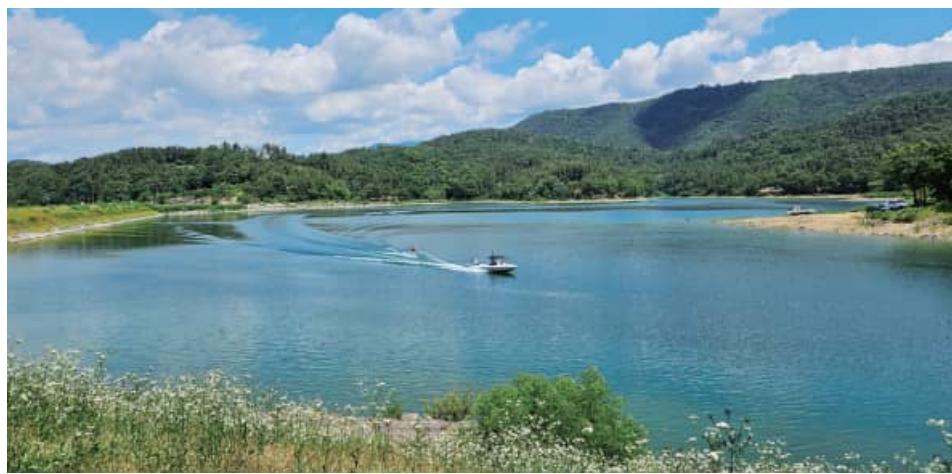


양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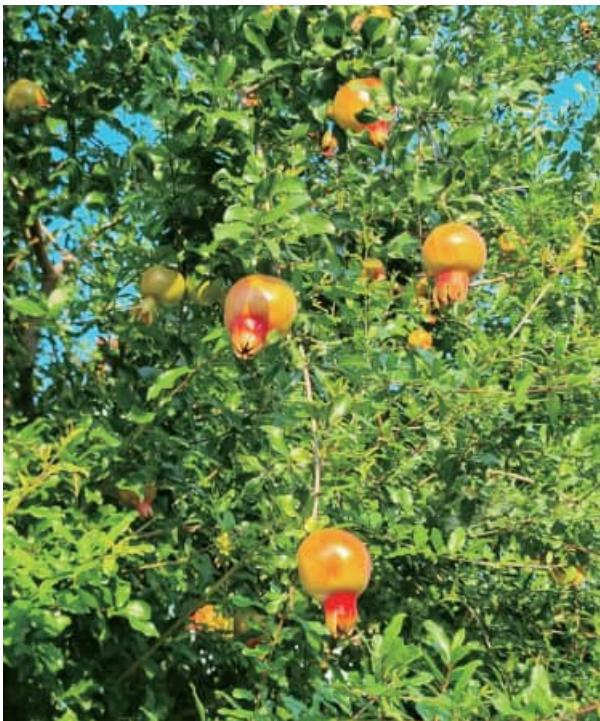
출렁다리

출렁다리를 타고 가는 기분은 10대 소녀입니다.(원주 소금산)



시원한 호수

너는 시원하겠다. 배타고 신났습니다.(봉무공원)



예 을 남

가을愛 석류

탐스러운 과일은 그대로 익어가는 중입니다.
(칠성동 2가 동네 마을)



물에 비친 건물

아담스럽고 청결한 물 위에 비춰진 건물
(경북대학교 연못)



이 동 건



썬크루즈호텔 야경

정동진의 상징적인 호텔과 춤추는 인어



호수에 비친 산천

거울에 비치는 내모습을 상상해 봄



이 병 옥

연리지

아름다운 나무도 너나 없이 사랑 나눈다.
사람은 나무를 닮아서 더욱 좋은 사랑을 나눴으면 합니다.
(김천 직지사)



감시의 눈

시민들이 지나가는 구청앞에 보이는 눈이니 철저히 구정을 감시한다는 표시 아닐까
(북구청 앞)



이 정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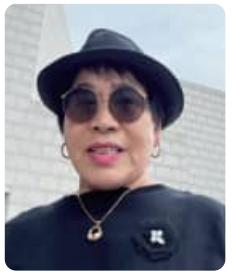
노을진 야경

저수지 야경에 노을이 약간 보입니다.
(경주 동궁)



벚꽃 야경

야간 조명에 비춰진 벚꽃과 조형물의 특이함
(김천 연화지)



임 원 심

시청앞 분수

솟아오르는 분수는 살아있는 생명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 시청 앞)



떠있는 구름이 좋아라

떠있는 구름이 너무나 가벼워 보이네
(금호강 하중도)



조영숙



가을의 풍경

나도 걷고 싶은데 찍어야 하니 나는 빠지고 어느 여인만
(진주 촉석루에서)



높은 하늘의 구름들

하늘이 높은데 나도 오르고 싶다. 구름속 묵고 싶습니다.
(진주 촉석루에서)



황명호

벚꽃 계단

봄이 오는 설레는 꿈의 장소
(침산공원)



여름밤 졸고 있는 가로등
(침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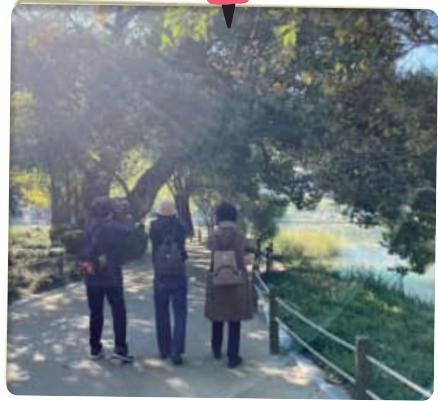
장정현



마음이 쉬어 가는길



동심(童心)



- … 나에게 사진은 일상생활의 표현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닐까
- … 기록이며 후에 추억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
- … 마음의 고향이다. 손쉽게 떨쳐볼 수 있어 친구처럼 만남의 공간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 …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일상
- … 사진과의 만남은 행복^^
- … 생활의 활력소
- … 생활의 일부가 된 거 같다. 처음 보는 것이나 아름다운 꽃, 경치나 좋은 것을 보면 그냥 찍고 싶은 마음이다.
- … 평범한 하루 속에 스쳐가는 순간을 붙잡는 내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는 창이다.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

추억의 기록과 마음의 추억 ☺



“사진을 찍을수록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같은 동료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었고 뿌듯합니다.”

“사진을 찍고 감상하며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통해서 즐겁게 보낸 것 같아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즐거움이 컼어요.”

“좋은 친구같은 분들 만나게 돼서 좋았습니다.”

“벗님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서로 간의 사진들을 볼 수 있어 더 발전할 수 있었던거 같아요.

야외출사와 오랜만에 부산 나들이 매번 설레임을 가지고 참여 했습니다.”

“강사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며 방구석을 탈출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홈페이지



페이스북



어르신의 사진 작품과 활동 모습은

북구노인복지관 페이스북에서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진 작품에 따뜻한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작품집은 「2025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